사설

지역 잠재력 극대화하는 '公論의 광장' 되겠다

창사 제 58주년에 부쳐

광주일보가 창사 58주년을 맞았다. '불편부당의 정론(正論)을 편다. 문화창달의 선봉(先鋒)에 선다. 지역개발의 기수(旗手)가 된다.' 1952년 광주일보는 3대 사시(社是)를 밝히며 세상에 태어났다. 호남을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민과 함께하겠다는 다짐이었다.

광주일보는 6·25 전쟁과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88올림픽, 외환위기 등 격동의 현장에서 역사의 증인이자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 광주일보는 굴곡 많은 대한민국 현대사와 궤를 같이 한 것이다.

쉰 여덟 번째 생일을 맞은 우리는 창간 주역과 선배들이 약속하고 실천한 불편부당의 언론정신을 되새기며 지역민의 편에서 광주·전남의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신문으로 새로운 60년, 100년을 열어갈 것을 다짐한다.

지금 대한민국과 광주·전남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국가적으로는 심각한 국론분열로 위기를 맞고 있다.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 교육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지역 간, 진보·보수 세력 간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경제적 불균형과 양극화 심화로 서민층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기만 하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점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서 보듯이 총체적으로 불안한 국가안보다. 정치·경제·사회의 불안정에 국가 안위마저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라곤 찾아 볼 수 없다.

광주·전남의 현 상황은 최악의 위기국면이다. 지역경제는 그동안 중심축이 돼왔던 건설·주택경기의 침체로 거의 붕괴 직전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 펼쳐지면서 척박한 여건의 지역경제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프로젝트들도 지지부진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문제로 홍역을 치르다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J프로젝트, 무안 기업도시, 2012 여수박람회 등도 정부의 무관심과 준비부족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광주·전남은 현 정부 들어 정치적 소외마저 심화되고 있다. 정치 권력에서 아웃사이더가 되면서 '정치적 섬'으로 전락한 것이다. 더욱이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에 개방의 파고까지 겹치면서 공동화되어 가고 있다. 지역민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살림살이에 허리가 휘고, 지역은 정치·경제의 중심에서 비켜나면서 활력을 잃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하지만, 절망과 신세타령으로 세월을 보낼 수는 없다. 언제까지 외부 탓만 하며 좌절하고 낙후의 멍에를 숙명처럼 여기며 살아 갈 수는 없는 일이다. 호남과 호남인은 항상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국가의 명운(命運)이 걸린 고비마다 국난극복에 앞장서 왔던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若無湖南 是無國家)'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험산준령(險山峻嶺)을 넘어 회갑을 목전에 둔 광주일보는 다시 옷깃을 여미고 신발 끈을 조여 맬 것을 독자들에게 약속한다. 지역 역량을 결집해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돌파하는데 앞장서겠다.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과 지역민의 뜻을 헤아려 지역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히 맞서고, 광주·전남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않겠다.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민의 민생 향상을 위해 흔들림 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소통과 통합을 촉진하는 '지역공론(公論)의 광장' 역할을 하면서 약자와 소외계층의 기회 확대 및 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 이와 함께 지역의 미래가 달린 6·2 지방선거를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겠으며 성숙한 지방자치와 선거문화가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올곧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계속 할 것이다. 누가 진정한 지역의 살림꾼이고 지역민의 심부름꾼인지를 가릴 방향타도 제시하겠다.

우리는 지난 58년 동안 지역언론과 여론 형성을 선도해온 광주일보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다. 정확한 사실 보도와 품격 높은 논평으로 광주일보의 명성을 이어가면서, 지역민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명실상부한 호남의 대표 언론으로서 명예를 지킬 것이다.

광주일보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호남인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는 58년 전의 초심(初心)을 되새기며, 독자 앞에 겸손하고 국가와 지역을 위해 더욱 고민하는 신문이 될 것임을 재삼 다짐한다. 애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드리며 배전의 충고와 사랑을 바라마지 않는다.

광주 광역철도 화순~나주 연결

市,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회 계획안 확정

총 40㎞ 지상고가 경전철 … 2조여원 투입

광주와 나주 공동혁신도시, 화순을 잇는 광역철도가 총연장 40㎞에 지상고가 경량전철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19일 '광주~공동혁신도시,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광주~공동혁신도시 간 광역철도는 상무역~서광주역~지방도 819호선~남평대교~공동혁신도시~나주역 노선으로 연장은 27.6㎞이다. 정거장 10곳, 차량기지 1곳이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1조 3천800억원이 소요된다.

또 6천322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는 소태역~너릿재 터널~화순 군내~화순전대병원 노선으로 12.4㎞이며, 정거장 6곳과 차량기지 1곳이 건설된다.

광주에서 공동혁신도시·화순 간 광역철도건설은 지난 2007년 말 국토해양부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따라 추가사업으로 반영됐으며, 광주시는 지난 2008년 8월 광역철도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지난해 초 5+2 광역경제권 수정 보완책으로 신광주 메트로폴리탄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주~화순 간, 광주~공동혁신도시 간 광역철도 건설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준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었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광역철도가 건설되면 광주와 화순을 연결하고, 광주와 공동혁신도시 간 대중교통망이 구축돼 주민들의 교통편의는 물론, 광주권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기능의 합리적인 재편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철도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를 말하며, 국가에서 사업비의 75%를 부담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라디오·인터넷 연설' 을 마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나로호 발사 6월 9일 오후 5시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재발사가 오는 6월9일 오후 5시 전후로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8월 25일 페어링 분리 이상으로 궤도 진입에 실패했던 나로호는 우주 진입에 재도전하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중현 교과부 제2차관 주재로 나로호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기술적인 발사 준비상황과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오는 6월9일을 발사예정일로 결정했다"며 "또 기상조건 등에 따른 발사연기 가능성을 고려해 6월19일까지를 발사예비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발사시간대는 당일 오후 4시30분에서 오후 6시40분 사이로 결정됐다.

김영식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발사시간대를 오후로 잡은 것은 발사 당일 8시간의 발사 전 운용작업 등 연구원들의 피로 누적을 고려한 것"이라며 "구체적 발사시간은 당일 기상상황과 우주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과 같은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감안해 발사 당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독자와 함께한 風霜의 세월

"천안함 침몰 단호히 대처할 것"

이명박 대통령 희생 장병 추모 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대통령으로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 MBC, SBS 등 공중파 TV 3사와 YTN, MBN 등 뉴스전문 케이블TV 등을 통해 10분간 생중계된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 결과에 대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중간에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손수건을 꺼내 닦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신들이 사랑했던 조국은 여러분을 결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통일이 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오면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의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천안함 함수에 연결했던 체인 한 줄이 끊어지고 기상악화 상황까지 겹쳐 인양 지연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남 최고 막걸리 뽑는다

23일 맛·향 등 평가

"전남 최고의 대표 막걸리를 찾습니다"

전남지역 막걸리를 모아 색깔과 맛, 향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대표 막걸리 선발대회'가 오는 23일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전남에서 100% 국산 쌀을 주원료로 한 막걸리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색깔 ▲향 ▲맛 ▲끝맛 등 4개 부문에 걸쳐 종합 평가해 우열을 가릴 계획이다.

농촌진흥청과 한국전통주연구소 관계자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생막걸리 2종과 살균막걸리 1종 등 모두 3종을 대표막걸리와 우수, 장려막걸리로 선발한다. 20점을 받으면 만점으로, 동점이 나올 경우 맛에 대한 평가 기준을 우선해 순위를 가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

해 산 공 고 (2차)

당 회사는 2010년 4월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이 결의되었습니다. 당 회사는 현재 해산절차를 취하고 있는 중인바, 당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들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상법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0일

주식회사 씨엔기술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조선대학교 산학협력관 4층 16호

청산인 이 인 범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유천리 전 2-12번지

소 재 지	지번	분묘기수
전남 화순군 화순읍 유천리	전 2-12	1필지 무연 : 1기

2. 개장사유 : 건물신축(제산권회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일의개장
4. 개장장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127-21번지 (화천사 봉안당 ☎ 061)375-7633)
5.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 고 처 : 전남 보성군 율어면 고죽리 227번지
·공고인 : 정정규 ·연락처 : 010-8606-2385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쉬기신고처로 신고
9. 기 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0년 4월 20일

공고인 주 소 : 전남 보성군 율어면 고죽리 227

성 명 : 정 정 규

함평 다이너스티 C·C 사 원 모 집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친환경 양잔디 골프장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에서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1. 모집요강

모집부분	인 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경영지원	여 0명	프런트	경력, 신입
코스관리	남 0명	굴삭기운전 및 기타	경력, 신입
식음료팀	남,여 0명	조리사, 웨이터, 웨이츄레스, 주부사원(30대)	경력, 신입

2.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통

3. 복지제도
• 기숙사 제공 / 1일3식 제공 / 4대보험
• 년차휴가 / 주1회 휴무제공
• 하계 및 동계휴가 / 교통비지원등 기타

4.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번지 경영지원팀
• 팩스 접수 : 061-320-7710
• E-mail 접수 : mannerwang@hanmail.net
• 문의 전화 : 061-320-7716(최관식)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

사원모집

본사에서는 참신하고 의욕적으로 미래를 창조할수 있는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분야

분 야	구 분	인 원	비 고
편집국 전산직	여	○명	포토샵 가능자
광고영업	남 여	○명 ○명	연령제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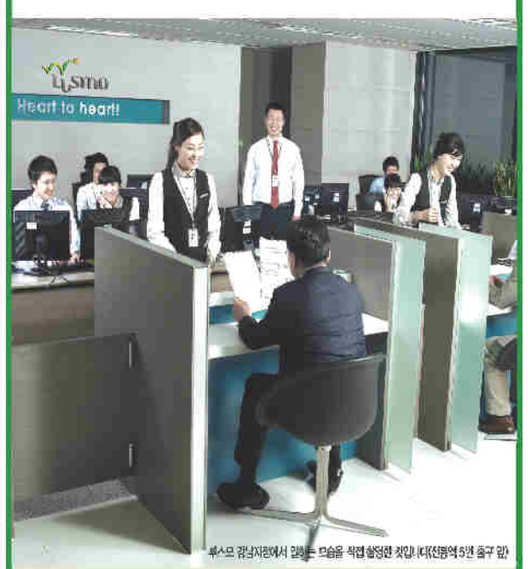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전형방법 및 접수
• 서류전형 및 면접
• 우편접수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2번지 광주일보사 광고마케팅국

서류 제출기한
• 2010년 4월 30일 까지
• 문의전화 : 062)227-9600 010-2035-3932

루스모

대출이 필요하시면 전국 지점망을 갖춘 루스모 에 전화하세요



일오육육 행~행 1566-1010

(주)콜렉트대부 [2008-3590000-25-5-00414]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4가 9-1 대한빌딩 5층

금리 : 연16%~48.9%(연체금리 최고 연 48.9%, 이자외 수수료 일체 없음)

서울본점 / 경남지점 / 부산지점 / 인천지점 / 대전지점 / 대구지점 / 광주지점 / 제주지점 / 콜센터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국립나주병원에서는 환우들의 문화 체험 및 다양한 스포츠 활동,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활동에 도움을 주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사대상 청소년에서 노인

봉사주기 정기(2주1회)

모집기간 연중 수시

봉사내용
• 중등과정 검정고시 학습지도
• 청소년을 대상으로 댄스 지도
• 문화 및 예술 교실
• 환우에 대한 멘토 활동
• 스포스댄스, 에어로빅 등

지원자격
• 대학생, 현업종사자, 일반인 누구나

신청방법
• 061)330-4169
• ksj1214@korea.kr

국립나주병원 의료사업과